

Daniel: 22 – Sermon Notes

Title: “The writing on the wall (part 2) ”

Scripture: Daniel 5:22-31

Date preached: November 3rd 2024

<p>Scripture: Daniel 5:22-31</p> <p>22 “But you his son,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 heart, although you knew all this. 23 And you have lifted yourself up against the Lord of heaven. They have brought the vessels of His house before you, and you and your lords, your wives and your concubines, have drunk wine from them. And you have praised the gods of silver and gold, bronze and iron, wood and stone, which do not see or hear or know; and the God who <i>holds</i> your breath in His hand and owns all your ways, you have not glorified. 24 Then the fingers of the hand were sent from Him, and this writing was written.</p> <p>25 “And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p> <p>MENE, MENE, TEKEL, UPHARSIN.</p> <p>26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i>each</i> word. MENE: God has numbered your kingdom, and finished it; 27 TEKEL: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28 PERES: Your kingdom has been divided, and given to the Medes and Persians.” 29 Then Belshazzar gave the command, and they clothed Daniel with purple and <i>put</i> a chain of gold around his neck, and made a proclamation concerning him that he should be the third ruler in the kingdom.</p> <p>30 That very night Belshazzar, king of the Chaldeans, was slain. 31 And Darius the Mede received the kingdom, <i>being</i> about sixty-two years old.</p> <p>22 “벨사살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23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p> <p>25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입니다.</p> <p>26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 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어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7 테겔은 ‘저울에 단다’ 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8 그리고 바르신은 ‘나눈다’ 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 질 것을 가리킵니다.” 29 그러자 즉시 벨사살왕은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달아 주라고 명령하였으며 또 왕은 조서를 내려 그를 나라의 제 3 인자로 삼았다.</p> <p>30 그 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31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 세였다.</p>
--

Review

Before we begin our examination of today's passag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Sunday.

We find our selves part way through the very familiar story of the writing on the wall. In case you have forgotten what got us to this point let me briefly recap the story. Chapter five begins with a new king, or to be accurate king(s) occupying the Babylonian throne. The king that we are most concerned with here is king Belshazzar. His name as you might remember means, “Bel (lord) or

Marduk protect the king.” He was the son of Nabonidus and the grandson of Nebuchadnezzar. It was Belshazzar who was sitting on the throne and ruling over the city of Babylon. Now you may wonder where King Nabonidus was at this time. Why was he not in Babylon? Well let me tell you.

Nabonidus had been captured by the Persian army. He was at this time a prisoner of war. You see unlike his foolish son Belshazzar, Nabonidus had at least tried to oppose the Persian forces slowly gobbling up his empire. He had taken his army out and confronted the enemy at a place called Borsippa about 50 miles from Babylon. The battle had not gone well. The Babylonian army had been routed and Nabonidus had been captured. He was later exiled to a place known as Carmania until he died.

This is the backdrop to chapter number five. The things that we read about here at the beginning of this chapter took place in the year 539 BC. That's a significant year. If you have any familiarity with ancient biblical history you will know that this is an important year for the Jews. It was the year in which the Babylonian empire was conquered by the Medo-Persian led by Darius the Mede. More importantly from a biblical standpoint is that it marked the end of the Babylonian exile (actually 538 BC). The 70 long years in captivity were up and the Jews would be allowe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yway back to chapter 5.

The action begins with the Persian forces literally at the gates of Babylon. The city is surrounded but the Babylonian elite seem unconcerned. They had every confidence in the thick walls that surrounded their city. King Belshazzar who shows himself to be a foolish and arrogant man decided that this was the ideal time in which to throw a wild party. He invited a thousand of his lords, cracked open the best wine and orders his chefs to prepare the finest food. Midway through this debauched feast the king calls for the Jewish temple treasures to be brought out. These were the holy items dedicated to God. They were only to be used in worshipping God. This was not what Belshazzar wanted to do. He wanted to use them to mock the God of Israel and toast his own worthless gods (idols). It is whilst this is taking place that a mysterious supernatural hand appears and writes a message on the plaster wall. The king is rightly terrified. He guesses that the message is intended for him but is unable to understand its meaning. He calls in his wise and learned men to interpret what the message means. Sadly, for all their occult knowledge and wisdom they cannot understand it either.

It is at this point in the proceedings that the queen (queen-mother) makes an appearance. She had wisely avoided the party. Seeing the king so distressed she offers him some advice. She reminds the king of a very wise man who provided great assistance to his “father” (grandfather) Nebuchadnezzar. This man, named Daniel was full of the Holy Spirit. God had given him insight and understanding, he surely could help the king. The king wisely listens to the queen and sends for Daniel.

When Daniel arrives the king explains the situation, and reiterates that the man who is able to interpret this message will be handsomely rewarded. Daniel has no interest in any of the material rewards on offer. God's gifts cannot be bought, and he doesn't want to be seen accepting gifts from a man who mocked and ridiculed God. As a result he rather bluntly tells the king to keep the rewards, or give them to someone else. What a wonderful way to respond to a king who thought money could buy whatever he wanted. However Daniel tells the king that he will provide him with an interpretation, free of charge!

In order to provide the proper context for the message Daniel needs to remind the king of what happened to King Nebuchadnezzar. Remember that these events are taking place about 20 years after Nebuchadnezzar's death.

As we have seen King Nebuchadnezzar ruled the empire at its height. He was unquestionably Neo-Babylon's greatest monarch. Under his inspired leadership wonderful things had been

accomplished. God had permitted the empire to flourish and allowed the king to rule as an absolute monarch. Inevitably perhaps the power and glory had eventually gone to his head. As the king looked around at the splendour of the city of Babylon he became arrogant and prideful.

He forgot the real source for all that he surveyed. God therefore determined to teach him a lesson on humility. He would be “bound” by madness for a period of seven years. This period of insanity would only be interrupted when the king acknowledged that it was God who was in ultimate charge, and not him. But here is the key take-away. Nebuchadnezzar for all his arrogance, pride and foolishness did learn his lesson. His stubborn hard heart melted, and he eventually turned to worship and place his faith in Yahweh. His experiences should have served as a sober lesson for those that followed him. The God of Israel was not to be mocked or ridiculed. And yet a little over 20 years later along comes Belshazzar to do just that.

Today we will discover exactly what God wanted to tell this foolish king and learn what became of him.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벽에 쓰인 글에 대한 이야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5 장에서는 새로운 왕, 정확히 말해서 왕(들)이 바빌론 왕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주 lord) 또는 마르독이 왕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도시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나보니두스 왕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는 왜 바빌론에 없었을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보니두스는 페르시아 군대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아들 벨사살과 달리, 나보니두스는 적어도 그의 제국을 천천히 집어삼키는 페르시아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바빌론에서 약 50 마일 떨어진 보르시과라는 곳에서 적과 맞섰습니다. 전투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패배했고 나보니두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카르마니아라는 곳으로 유배되어 지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5 장의 배경입니다. 5 장의 시작 부분은 기원전 539 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해입니다. 고대 성경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해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다리우스가 이끄는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해였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에 바빌론 유배가 끝났습니다(실제로는 기원전 538 년). 70 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의 성문 앞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도시는 포위되었지만 바빌론의 엘리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둘러싼 두터운 성벽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한 벨사살 왕은 이 시기에 난잡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천 명의 귀빈들을 초대하고 최고의 와인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여 즐겼습니다. 이 난잡한 파티 도중에 왕은 유대인 성전 보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무가치한 신(우상)에게 건배하고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신비한 초자연적인 손이 나타나 석고 벽에 메시지를 씁니다. 왕은 당연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자들을 불러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마법 지식과 지혜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왕의 어머니(queen-mother)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현명하게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버지"(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크게 도와준 현명한 사람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으므로 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왕은 현명하게 여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 왕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사람은 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물질적 보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상을 왕이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에게 정말 멋지게 대응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공짜로 해석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려줍니다. 5 장의 사건들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약 2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절정기에 통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신바빌론의 가장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도력 아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이 번영하도록 허락하셨고 왕이 절대 군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권력과 영광이 그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바빌론 도시의 화려함을 둘러보고 오만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왕은 그가 본 모든 것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광기에 "묶여" 지냈습니다. 이 광기 기간은 왕이 궁극적인 주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했을 때에만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오만함, 교만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은 녹았고, 그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후세들에게 냉정한 교훈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롱이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정도 지난 후에 벨사살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볼 것입니다.

22 “But you his son,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 heart, although you knew all this.

We quite rightly recognise Daniel as being a prophet. He was a man sent out as a spokesman for God. Simply put God used his mouth to speak to men. This is never an easy job. On numerous occasions what God had to say was not welcome or well received by men. As a result many prophets suffered for the messages of truth they delivered. Here is just a partial list of some well known prophets and what they suffered. Zechariah, stoned to death, Jeremiah, beaten and imprisoned, Ezekiel killed, and Amos tortured and then killed. Despite the hardships and persecution they faced God's prophets were never fazed. They never allowed the fear or threats of men to deter them from speaking God's truth.

Daniel here follows in that great prophetic tradition.

He delivers God's message faithfully and fearlessly. He is not afraid to pass this harsh judgement against this powerful king.

The Pulpit Commentary makes the following comment on Daniel's words,

“Such an insulting speech as Daniel addressed to Belshazzar would certainly be visited with punishment.”

Daniel however was undeterred. We must never be put off from speaking God's truth even though it may not be well received.

As we have seen it was necessary for Daniel to set up the context of the message on the wall. This context involved briefly outlining the history of king Nebuchadnezzar. Without providing this context the message would not have had the desired impact and effect. He had to provide this brief history lesson in order for what he says regarding Belshazzar to make sense. Here's why.

We know that when some people are caught breaking the law they plead ignorance. Their defence is that they did not know that what they were doing was wrong or illegal.

“You may say I was speeding officer, but I didn't know that the speed limit was only 60 km per hour.”

or,

“I didn't know that I had to file that particular document with my tax returns.”

In some cases ignorance can be prove to be a valid excuse, or in other situations it may at least mitigate the offence and lead to a lighter sentence. In others situations this claim is outrightly rejected. There is a famous Latin maxim which states, *“ignorantia juris non excusat”* (ignorance of the law excuses not).

In Belshazzar's case he could not have made such a claim. He could not claim that he had never heard about the mighty God of Israel. Even if he rejected Yahweh as his own personal God he could not plead ignorance of His existence. In Romans chapter 1 we read the following,

20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21 because,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nor were thankful, but became futile in their thoughts,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22 Professing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23 and changed the glory of the incorruptible God into an image made like corruptible man—and birds and four-foote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Rom 1:20-23)

This passage reminds us that all ultimately are without excuse. None can claim that they had no knowledge of God. We only have to look around with the eyes that He had given us to see evidence of His existence.

So Belshazzar should have known better. He was fully aware of the history of his grandfather Nebuchadnezzar and all he experienced. His failure to acknowledge and learn from this experience means he was worthy of even greater punishment.

So Daniel's words are deliberately sharp and cutting. Belshazzar knew these things and yet still remained arrogant and prideful. He knew about God, and yet still deliberately chose to reject him.

Daniel models for us here the approach we are to take to truth telling. We are never to shy away from delivering the truth even if that truth makes us, or others feel uncomfortable. Let us be honest it's not always easy. Today we may be silenced or cancelled from social media for our Christian views. In the future I suspect we will be imprisoned, or silenced in more permanent ways. So it is hard, but necessary for us to stand up and point out errors in others.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gives us the courage and conviction when we need it.

Those are serious enough charges levelled against Belshazzar but let's read on and see what else he was guilty of.

22 “벨사살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들과 그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 예를 들자면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구타당하고 투옥된 예레미야, 살해된 에스겔, 고문을 받고 살해된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부터 겁박이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그 위대한 선지자적 전통을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고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그는 이 강력한 왕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Pulpit Commentary 는 다니엘이 한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그런 모욕적인 말은 확실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메시지의 배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배경 지식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를 모른다면 그 메시지는 원하는 영향과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벨사살에게 할 말을 이해하려면 이 간략한 역사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지함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거나 불법인지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경관님, 제가 과속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지 몰랐어요.” 또는

“저는 세금 신고서에 그 특정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떤 경우에는 무지가 타당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를 완화하고 가벼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기각됩니다. "*ignorantia juris non excusat*"(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존재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만든 것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21**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22**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로마서 1:20-23)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역사와 그의 경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배우지 못했으니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은 의도적으로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벨사살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취해야 할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진실이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을 결코 꺼려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독교적 견해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목살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벨사살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심각하지만 계속 읽고 그가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 And you have lifted yourself up against the Lord of heaven. They have brought the vessels of His house before you, and you and your lords, your wives and your concubines, have drunk wine from them. And you have praised the gods of silver and gold, bronze and iron, wood and stone, which do not see or hear or know; and the God who holds your breath in His hand and owns all your ways, you have not glorified.

Quite clearly Belshazzar has not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Nebuchadnezzar. He has not learned to honour and respect the God Most High as his grandfather (eventually) had. This is clearly manifest when we consider how he treated the sacred vessels taken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As we saw he brought them into the party and used them in a sacrilegious way. These vessels; cups, bowls and plates had been set aside for Yahweh worship. They were dedicated to the one true God of the universe. This means that they were only to be used in a respectful and reverential way. This is not how Belshazzar had used them. He had brought them out and used them as toys for drinking. He had employed them in a mocking and rebellious manner. He was lifting himself, his empire and his pagan gods up as he downplayed the importance and worth of the one true God.

Daniel makes a point of highlighting the materials that the pagan gods were made of, **silver, gold, bronze, iron, wood and stone**. This is intended to highlight that these idols were nothing more than man made statues or images made of everyday materials. This means that in essence they were worthless trinkets. They possessed no true power, there was nothing of substance behind them. A wooden or stone statue is not cognisant of what is going on. Therefore these idols are unable to offer any assistance in times of trouble or distress.

I think of the parallels here with the way Roman Catholics revere their saints. I don't see any major problem with us remembering godly men and women from the past, and recognising their contribution to the kingdom. So we could for example speak of, or even study people like John Calvin, J. Hudson Taylor, Gladys Aylward or Eric Liddell. But it becomes highly problematic when we raise these "saints" up to the status or level of intercessors. When we offer our prayers to them and think that they can help or intercede on our behalf. That's deeply troubling and more importantly it's anti-biblical. Our prayers are only ever to be directed to God, and God alone.

Let us compare Belshazzar and his attachment to idols with the New Testament converts in Thessalonica. When they heard the gospel message how did they respond?

6 And you became followers of us and of the Lord, having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joy of the Holy Spirit.

9 For they themselves declare concerning us what manner of entry we had to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1 Thess 1:6,9)

As we see here those who truly come to know the truth turn from their idols and put their faith in the God. They recognise that these man made representations of “god” are simply that. They throw these idols away and come to the realisation that the God we worship and adore is spirit. This means we cannot, and nor should we attempt to render His image with material things. As Paul tells those in Athens,

Therefore, since we are the offspring of God, we ought not to think that the Divine Nature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something shaped by art and man’s devising. (Acts 17:29)

So we see here the stupidity and futility of what Belshazzar is doing. He's offending the living and true God as he lifts up useless images.

Finally, Daniel reveals the full extent of the king's arrogance. The king had failed to appreciate who he was and where he fitted into God's grand scheme. As an absolute monarch ruling over a vast empire Belshazzar was used to getting his own way. He could do, say and think whatever he wanted. No one could oppose his will. Or, that's what he thought.

Daniel reminds him here of one essential truth. The truth is this, it is God who holds everything in His mighty hands. Big, medium or small nothing lies outside God's purview. The life of an ant, or the life of a king. God is in control and is concerned with both. Belshazzar's life and destiny, as do all of ours lies in God's hands. When God determines our life is over, and we take our last breath that will be all. Our status, money, fame or influence will mean nothing.

Belshazzar was ignorant and dismissive of this reality. His arrogance meant that he simply didn't care. We see a steady progression or deterioration in his attitude. First, he knew the truth but turned from it. Second in his act of sacrilege he blasphemed the God of that truth. Thirdly he worshipped false gods. Fourthly, and finally he failed to appreciate who really was responsible for his life and destiny.

He should have known better but he had not learned from the past. This was why God had decided to send him a message. Let us turn now and see what that message was.

23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마침내) 배웠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그릇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그것들을 술파티에서 사용함으로써 모독했습니다. 이 그릇들, 즉 컵, 그릇, 접시는 여호와 경배를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즉, 그것들은 존중하고 경건한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장난삼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조롱하고 반역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를 폄하하면서 자신과 그의 제국, 그리고 그의 이교 신들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은 이교 신상들을 만든 재료인 은, 금, 청동, 철, 나무, 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우상들이 일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쓸데 없는 장신구였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실체가 없었습니다. 나무나 돌 조각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과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성인을 경외하는 방식의 유사점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경건한 남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 J. 허드슨 테일러, 글래디스 에일워드 또는 에릭 리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때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인들 saints"을 중재자의 지위나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돕거나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벨사살과 우상에 대한 그의 집착을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개종자들과 비교해 봅시다. 그들은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6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9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경위를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밝히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6,9)

여기서 보듯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신 god"의 형상이 그저 형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 spirit 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분의 형상을 표현할 수도 없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행 17:29)

우리는 여기서 벨사살이 하는 행동의 어리석음과 허무함을 봅니다. 그는 쓸모없는 우상을 들어 올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의 오만함의 전모를 드러냅니다. 왕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로서 벨사살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뜻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왕에게 한 가지 필수적인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진실은 모든 것을 강력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크든 중간이든 작든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미의 삶이나 왕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은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벨사살의 삶과 운명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결정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 돈, 명예 또는 영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벨사살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무지했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태도에서 꾸준한 진전 또는 악화를 봅니다. 첫째,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둘째, 그의 신성 모독 행위에서 그는 진실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셋째, 그는 거짓 신을 숭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통제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잘 알았어야 했지만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4 Then the fingers of the hand were sent from Him, and this writing was written.

25 “And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

MENE, MENE, TEKEL, UPHARSIN.

Here Daniel affirms that the mysterious writing is a sign directly from his God.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worthless idols that Belshazzar honoured. As dumb objects they were completely unable to send messages or advise in any way.

The Lord delivered this message, in part, because of Belshazzar's recent sins. God was most displeased with the king's act of sacrilege. However this was not the only reason God acted at this moment. Belshazzar was guilty of far more than just the sins surrounding this event. Daniel's speech has shown us that the king had rejected God and all He stood for prior to this event. So really we should see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supernatural hand as a sign of God's perfect timing.

At times God chooses to let an unbeliever's pride and blasphemy build up to a peak before He unleashes divine judgment. In the New Testament we have the example of King Herod (Agrippa 1). He was already known for his wickedness and unbelief. However when he delivered a speech and accepted praise as a god, it was at that moment that the Lord struck him with a horrific and fatal disease (Acts 12:20–23). A similar thing applies here to Belshazzar. He had been an evil wicked rejector of Yahweh long before God chose to finally act.

Daniel then reads the inscription that God gave. It reads as follows,

MENE, MENE, TEKEL, UPHARSIN.

As we noted back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ermon series Daniel is written in two languages, Hebrew and Aramaic. The section we are examining now was originally written in Aramaic. However we cannot be certain that this message was written in this language. Daniel may be translating it from another language, perhaps Hebrew into Aramaic for the benefit of his readers.

We also speculated last time as to whether it may be a cipher or code (puzzle) of some kind. Either of these explanations help explain why it was that the king and his wise men could not read the writing.

Let us turn now and find out what this cryptic message means.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25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신비한 글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표적이라고 확언합니다. 이것은 벨사살이 경외했던 무가치한 우상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쓸모없는 우상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조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벨사살이 최근에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신성모독 행위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역사하신 이유

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은 이 사건을 둘러싼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의 연설은 왕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손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보내신 표적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불신자의 교만과 신성 모독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신약에서 헤롯 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마그리파 1 세). 그의 악함과 불신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설을 하고 신이라는 찬양을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내리셨습니다(행 12:20-23). 이와 비슷한 일이 벨사살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정하기 오래 전부터 그는 여호와를 거부한 사악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읽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MENE, MENE, TEKEL, UPHARSIN.

다니엘서 설교 시리즈의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원래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자체가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아마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암호나 코드(퍼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왕과 그의 현자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6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each word. MENE: God has numbered your kingdom, and finished it; 27 TEKEL: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28 PERES: Your kingdom has been divided, and given to the Medes and Persians.”

Daniel now moves on to the all important interpretation. The message comprises of just three words. The first word is repeated twice.

As Adam Clarke states in his commentary,

“Each word stands for a short sentence; mene signifies NUMERATION; tekkel, WEIGHING; and peres, DIVISION.”

The word MENE (mina or minah) might, depending upon the context refer to a unit of money (a coin) or to a particular weight (20 ounces). The term derives from a root word meaning "to number" or "to gauge." This is the most likely meaning here. So simply put it means that God has counted or numbered the years of Babylon or Belshazzar. Everyone has a set number of days to live. When those days are over, times up!

So God has counted or numbered Belshazzar days, and his time is over. The repetition of the word stresses or emphasises that God has determined that this will happen and soon.

The word TEKEL (shekel) may also refer to a unit of money or a measurement. However it is more closely tied to weight (or weighing). Weights in the ancient world were often used to check the purity of substances. This ensured that they were made of the correct material. Failing this test implied that something inferior had been found.

Think if you will of a set of scales. Let us imagine that we are shopping in the market for rice. We want to buy one kilogram of rice. On one side of the scale a one kilogram weight is placed. Then rice is poured onto the other side of the scale. When they are equally balanced (providing the weight is genuine) we know that we have one kilogram of rice. So here the idea is that God has weighed

Belshazzar and found that he doesn't measure up. He doesn't meet God's standard. He's too light, he's been found wanting.

Who would bring an end to this king and the empire of which he rule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omes in the final word.

The word PERES (*upharsin*) was also used for counting, since the root word suggests something being split or divided into smaller parts. Just a little grammar note her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the word. The writing on the wall used a plural noun, but Daniel subtly changes it here to the singular *peres*. The “UP”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upharsin* means “and.” So literally the message read,

“Numbered,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The word *Peres* also sounds very similar for the name of Persia in Aramaic which was “Paras.” So the meaning here is quite easy to discern. The empire of Babylon is to be divided between the Medes and the Persians. With the enemy forces at the gates this was very shortly to happen.

So allow me to sum up what this message meant in relation to king Belshazzar and the Babylonian empire.

Your years have been counted by God, your time is up. You have been weighed and come up short. Now your empire is to be divided between your enemies.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26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 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7 테겔은 ‘저울에 단다’ 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8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다’ 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메시지는 세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두 번 반복됩니다.

애덤 클라크가 그의 해설에서 설명하기를,

“각 단어는 짧은 문장을 나타낸다. 메네 *mene* 는 숫자를 의미하고, 테겔 *tekell* 은 무게를 의미하고, 바르신 *peres* 는 나누기를 의미한다.”

메네 *MENE* (*mina* 또는 *manah*)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돈의 단위(동전) 또는 특정 무게(20 온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계산하다" 또는 "계량하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나 벨사살의 햇수를 세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날을 세셨고, 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 단어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곧 일어나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테겔 *TEKEL* (*shekel*)이라는 단어는 화폐 단위 또는 측정 단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또는 무게 측정)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게는 종종 물질의 순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무게를 재서 올바른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실패하면 불순물이 섞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서 쌀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쌀 1kg 을 사고 싶습니다. 저울 한쪽에 1kg 무게추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쌀을 저울 반대쪽에 붓습니

다. 양쪽 무게가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면(무게추가 정확한 경우) 쌀 1kg 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질하여 그가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가볍고 부족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왕과 그가 다스리던 제국을 끝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르신 PERES (우바르신 upharsin)라는 단어는 어근이 무언가를 더 작게 나누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세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벽에 쓰인 글은 복수 명사를 사용했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미묘하게 단수형 바르신 peres 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바르신 upharsin 이라는 단어의 시작 부분에 있는 "UP"은 "그리고 and"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어 보고, 세어 보고, 무게를 재 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Numbered,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바르신 Peres 이라는 단어는 또한 아람어로 페르시아 "Paras"와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의미는 알아내기 쉽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적군이 성문 밖에 있으니 이 일은 곧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벨사살 왕과 바빌론 제국에게 의미하는 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해를 세셨고, 너의 시간은 끝났다. 너의 무게를 달았더니 부족했다. 이제 네 제국은 너의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29 Then Belshazzar gave the command, and they clothed Daniel with purple and put a chain of gold around his neck, and made a proclamation concerning him that he should be the third ruler in the kingdom.

The episode concludes in a rather odd way. The king has been spoken to rather harshly. We would not be surprised to discover that he was angry or offended at Daniel. Also its likely that he found the message Daniel had given to him to be alarming. It would be one thing to be told your time was up on a sunny day with no enemy in sight. But at night with the enemy forces surrounding your city is an entirely different prospect. And yet despite this the king made good on his promise. He had promised to richly reward the man able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They would be clothed in purple, have a gold chain placed around their neck and would be made the third ruler of the kingdom. As we saw before these prizes held no appeal to Daniel. He had rejected them and told the king to give them to someone else. In fact given that the empire was about to fall the title of third ruler was essentially worthless. And yet it seems as though Daniel accepted these things even though he would only get to enjoy them for a short time.

When we consider the prizes and riches of this world we see that they too are only for a short time. We might devote all our time and energy to amassing a great fortune and only get to "enjoy" it for a brief passage of time.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Solomon's wise words,

**As he came from his mother's womb, naked shall he return,
To go as he came;
And he shall take nothing from his labor
Which he may carry away in his hand.
(Ecclesiastes 5:15)**

The treasures of this world are temporary and fleeting we arrived empty-handed and that's how we'll leave.

Recently I listened to a very interesting podcast in which people who all had jobs associated with the dead were chatting. Included in the group were a mortician, an embalmer, a death midwife and a forensic scientist. They had lots of fascinating things to say. One thing that really struck me

however was something that the death midwife said. Her job is to be with, and comfort the terminally ill. She was asked what those dying regret most. She said that the most common thing she hears is that they wish they had done something and not put it off until it was too late. They wished they had taken a trip to Las Vegas, gone on that cruise, learned to ski or just retired sooner.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ir wishes were never related to material things. No one, she said ever wished that they had bought an Italian sports car, a Rolex watch or a bigger house. Most wished that they had valued their time more, and spent more of it with the people they loved.

How sad that people only realise this when it is too late! I encourage you all to think deeply on this.

Let us conclude today's study by looking at verses 30 and 31.

29 그러자 즉시 벨사살왕은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달아 주라고 명령 하였으며 또 왕은 조서를 내려 그를 나라의 제 3 인자로 삼았다.

이 이야기는 약간 이상하게 끝납니다. 왕은 다소 가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했다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놀랐을 가능성이 큼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 화창한 날에 당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적군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밤에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목에 금 사슬을 두르고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상은 다니엘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국이 무너질 찰나에 세 번째 통치자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뿐이지만 다니엘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부를 생각해 보면 그것들 역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재산을 모으는 데 바치지만 그것을 잠깐 동안만 "즐길" 수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현명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15)**

이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이고 덧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죽은 사람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매우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그 그룹에는 장의사, 방부사, 사망 조산사, 법의학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망 조산사 death midwife 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말기 환자와 함께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은 무언가를 했으면 좋았을테고 너무 늦을 때까지 미루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갔거나, 크루즈를 탔거나, 스키를 배웠거나, 그냥 일찍 은퇴했으면 좋았을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탈리아 스포츠카나 롤렉스 시계, 더 큰 집을 샀으면 좋았을거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보냈으면 좋았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늦게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30 절과 31 절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0 That very night Belshazzar, king of the Chaldeans, was slain. 31 And Darius the Mede received the kingdom, being about sixty-two years old.

When we looked at the story of Nebuchadnezzar we saw that God extended to him a period of grace. He was given 12 months to repent, turn from his sin and look to God. Belshazzar was given just a matter of hours. It's a valuable reminder to us all not to take the time we are given for granted. We all hope we have many long years ahead of us, but none of us can be certain of that. God might call time on our lives whenever He chooses.

God called time on Belshazzar that very night. The city of Babylon fell and Belshazzar was killed. The ancient Greek historian Herodotus records that this took place on the 16th of Tishri either the 11/12th October 539 BC.

The fall of Babylon took place in a fascinating way. As I have mentioned the walls of the city were virtually impenetrable. They were 24 meters tall and up to 26 meters wide. There was no way they could be breached or scaled. A siege also was unlikely to succeed. The city had the river running through the centre and plenty of food was stored inside. So the Medo-Persians came up with a very clever plan. They built a dam upriver and diverted the Euphrates river into a nearby swamp. Once the water level had been reduced to about knee height the troops were sent in. They attacked from both sides of the city and waded up to the main gate. The attack would still have faltered were it not for an amazing stroke of luck (divine provenance). The huge bronze gates to the city had inexplicably been left open.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throw a wild party at a time of crisis.

We should note however that this was exactly what God predicted in Isaiah (44:28-45:7) and Jeremiah (51:57-58). It was God who opened the gates of the city of Babylon for the Medo-Persian forces to enter. He had put this in writing 200 years before it happened!

This section ends by telling us that Darius the Mede received the kingdom. This detail has caused historians a major headache. The problem rests on identifying who Daniel is referring to here. Outside of the biblical account, references to such a person are virtually non-existent. There's no direct archaeological or textual evidence confirming his existence as a ruler in the manner described in the Book of Daniel. So who exactly is Darius the Mede? Let's see if I can shed some light on the issue.

The conquest of Babylon was engineered by Cyrus the Great (the king of Persia). He did not die until 529 BC. So he was the reigning monarch at the time of the conquest. This means Darius the Mede could not have been the supreme ruler of the Medo-Persians. Therefore many scholars have put forward the idea that this Darius was actually Gubaru (Gobryas) a notable general in the army. Due to his military acumen and the fact that he was a highly trustworthy individual he was placed in charge of Babylon by Cyrus and ruled the region for two years. He was the ruler who promoted Daniel and also threw him to the lions. This is my own personal view.

Others argue that Daniel used the word *Darius* (which means "lord") as a title for the ruler in Babylon, rather than a proper name. So Darius the Mede and Cyrus the Great are one and the same. In the same way that we might say that the King of England and King Charles the 3rd are the same person. Support for this view comes from the idea that it would have been very unusual for a subordinate to divide the empire into 120 pieces as Darius the Mede did.

Whoever Darius the Mede was it's worth noting that Daniel gives mor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al background of him than of Belshazzar or even of Nebuchadnezzar. He is the only monarch in the book whose age, parentage, and nationality are recorded.

Although he was probably a subordinate ruler like Belshazzar, it is evident that he ruled Babylonia with far greater zeal and efficiency than did his Babylonian predecessor. And even more

importantly he honoured the God of Daniel. We will learn more about this man next time.

30 그 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31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 세였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죄로 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일 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벨사살에게는 몇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날 밤 벨사살의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바빌론 도시는 함락되었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일이 티슈리월 16일 the 16th of Tishr 즉, 기원전 539년 10월 11일/12일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바빌론의 함락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도시의 성벽은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높이는 24m, 너비는 최대 26m였습니다.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위 공격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흘렀고, 많은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페르시아인들은 매우 영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상류에 댐을 쌓고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근처 늪으로 돌렸습니다. 수위가 무릎 높이로 낮아지자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양쪽에서 공격하여 성문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행운(하나님이 주신)이 없었다면 공격은 여전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거대한 청동문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난잡한 파티를 벌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44:28-45:7)와 예레미야(51:57-58)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빌론 도시의 문을 열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기록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이 구절은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 Darius the Mede 가 왕국을 장악했다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역사가들에게 큰 골치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성경 기록 이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묘사한 통치자로서 그의 존재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고고학적 또는 문헌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정확히 누구일까요? 제가 이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빌론 정복은 고레스 대왕 Cyrus the Great (페르시아의 왕)이 계획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529년까지 죽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 당시 군주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리우스가 메대-페르시아의 최고 군주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리우스가 실제로 군대의 저명한 장군인 구바루 Gubaru (고브리아스)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통찰력과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고레스가 그를 바빌론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2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승진시키고 사자굴에 던진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용한 다리우스 Darius 가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바빌론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칭호 다리우스 Darius("주 lord"를 의미함)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메대 사람 다리우스와 고레스 대왕은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왕과 찰스 3세가 같은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이 견해의 근거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일개 부하였다면 제국을 120개로 나눈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누구였든 다니엘이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보다 그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 부모, 국적이 성경책에 기록된 유일한 군주입니다.

그는 아마도 벨사살처럼 종속된 통치자였겠지만, 그가 바빌론을 그의 전임자인 벨사살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효율성으로 통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Passing the baton on

One of the most exciting athletic events to watch is the relay race. The 4x100 is fun but its over much too quickly. I prefer the 4x400. That is a really exciting and tactical race. What's true for both relay races is the critical importance of a smooth baton change. If the change over is fumbled or mistimed it can cost vital time or even see the team disqualified. No matter how fast an individual member of the team runs all their efforts may be in vain if the baton does not smoothly progress to the next runner.

The Christian life is in some ways a little like a relay race. Each leg of the race is a generation of believers. The baton is the faith that we hold dear. It does not matter how well one generation runs if the baton of faith is not properly handed on to the next generation. If we are not mindful we can drop the baton, fumble it or forget to pass it on entirely.

I found an article on the internet from 2013 written by the then Archbishop of Canterbury Lord Carey. He writes that unless the Church of England acts rapidly it is only a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Now 11 years later his pronouncements seem highly prophetic. The baton was not passed on, and the race for the national church in England is almost over. According to the churches homepage in 2023 just 92,000 children in the UK attended the church weekly.

I wonder how the church is faring here in Korea? Are we doing all we can to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is strong and will be able to run their leg of the Christian relay? There is much that can be done. Let us be positive and seek the Holy Spirits guidance and wisdom on how we can run well and prepare the next generation to run their race.

1. 배턴을 넘겨주다

가장 흥미진진한 육상 경기 중 하나는 계주입니다. 400m 계주 4x100m는 재밌지만 너무 빨리 끝납니다. 저는 1,600m 계주 4x400m를 더 좋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전략적인 경기입니다. 두 계주 경기 모두에서 매끄러운 배턴 교체가 중요합니다. 교체가 실수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팀이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팀의 개개인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배턴이 다음 주자에게 순조롭게 전달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계주와 비슷합니다. 경주의 각 구간은 신자들의 세대입니다. 배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배턴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한 세대가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배턴을 떨어뜨리거나, 실수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3년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캐리 경이 쓴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 지나면 멸종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11

년이 지난 현재, 그의 선언은 매우 예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배턴은 전달되지 않았고, 영국 국가 교회의 경주는 거의 끝나 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 년 영국에서 매주 교회에 참석한 어린이는 92,000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강해져서 기독교 계주 구간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주를 잘 하면서 다음 세대가 잘 달리도록 어떻게 준비시킬지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2 Meeting God's standards

When I was a boy I would often accompany my mother into Birmingham to shop at the Bull Ring. It was my job to pull the trolley which was soon piled high with shopping. The Bull Ring was a huge and noisy fruit and vegetable market which has now sadly gone. In those days produce was often sold after being weighed on scales. Each stall keeper would have their own set of scales and weights appropriate to the goods they sold. I always watched with keen interest as more produce was added until the scale balanced, and the exchange was made. Even as a boy I sometimes wondered whether the weights were genuine. No one ever seemed to check them. Provided they were just fractionally heavier than they were supposed to be the stall owners could cheat their customers. I'm sure the good market traders of Birmingham never did such things.

In our story today God placed Belshazzar on the scales. By God's measure he was found wanting. God of course never cheats with his measurements. Belshazzar was a sinner, and he fell far short of God's standards.

How would you fare if God placed you on His scale? Would you meet God's standards? Allow me to explain what would be required. Picture in your mind the scales.

On one side would need to go all of your righteousness. All of your good deeds, your generous acts, your clean and pure thoughts. The other side would have to be empty. Not one single thing could be on that side of the scale. Just one single sin would be enough to negate all your good "righteous" works. So how do you measure up? Can you save yourself?

The answer for all of us is a resounding NO.

Paul tells us in Romans that none of us is righteous, no not one (Rom 5:8-9). None of us measure up.

The reason is that we are all corrupted by sin. Our inherited sin nature means that we do not come close to God's standard of perfection. Only one man who ever walked this earth did measure up.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perfectly met the standards. He never once fell into sin. It was this perfection which meant He was able to take our place on the cross. Bearing our burden of sins He died in our rightful place. When we confess our sins and put our faith in Him His righteousness is imputed to us.

This means that God looks at us and sees His perfect Son. So thanks to the Lord Jesus Christ and Him alone we do measure up. Because He died for us we do meet God's perfect standards. Thank you, Jesus.

2.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종종 버밍엄의 Bull Ring 에 쇼핑을 갔습니다. 제 일은 쇼핑한 물건으로 가득 찬 카트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Bull Ring 은 지금은 슬프게도 없어진 거대하고 북적거리는 과일과 채소 시장이었습니다. 그 때에는 종종 저울로 달아서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각 노점 주인은 판매하는 상품에 맞는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농산물이 더 추가되는 것을 매매가 성립될 때까지 항상 예리하게 지

켜보았습니다. 어렸지만 저는 때때로 그 추들이 진짜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추가 실제보다 조금 더 가볍다면 노점 주인은 고객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밍엄의 훌륭한 시장 상인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척도에 따르면 그는 부족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척도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벨사살은 죄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저울에 올려놓으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울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울의 한 쪽에는 당신의 모든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행, 관대한 행동, 깨끗하고 순수한 생각 등입니다. 다른 쪽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쪽 저울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쪽 저울에 단 한가지 죄만 올려놓아도 당신의 모든 선한 "의로운" 행위를 무효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답은 확실한 '아니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롬 5:8-9). 우리 중 누구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된 죄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걸었던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기준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완벽함으로 인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완벽한 아들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